

# 지구촌비전

Vol. 302  
2025. 6월호  
민족치유 세상변화

02

이달의 메시지  
- 우리의 과거  
- 우리의 미래

24

글로벌목장  
이주민 선교:  
우리 이웃으로 찾아온 땅끝

30

특집  
지구촌교회 제4대  
김우준 담임목사 취임

50

지구촌 카페  
군부대 사역의 기쁨

72

의학상식  
운동 싫어하세요?  
괜찮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 40:8)



## 무해(無害)

풍요는 넘쳐나지만 사람들 마음 머물 곳은 도무지 찾을 수 없다.

부드러운 인형, 귀여운 장난감으로 잠시나마 무해를 찾으려하지만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을 뿐

그분 안에는 해로운 것이 없고, 그분의 선물은 절대적 무해(無害)함이다. **시구촌**

## 표2 사진으로 보는 은혜의 단상

무해(無害)

## 2 이달의 메시지

- 우리의 과거(이동원 원로목사)
- 우리의 미래(김우준 담임목사)

## 10 이달의 칼럼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MET2025 단기선교

## 12 내 평생의 말씀

목자되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계절에……

## 15 새 가족의길

- 반듯한 신앙인 되기
- 깨달아지는 기쁨

## 16 목장이야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 18 미취학지구

- 마더와이즈
- 아내와 엄마의 역할도 사명입니다
- 지혜, 변화의 시작

## 22 대학지구

경청과 소통

## 24 글로벌목장

이주민 선교: 우리 이웃으로 찾아온 땅끝

## 28 해외선교부

MET2025 땅끝까지 살롬!

## 30

### 특집 지구촌교회

#### 제4대 김우준 담임목사 취임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를 찾아가는 과정
- 미래준비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합니다

## 46 영구제직

지구촌교회 안수집사장로회 작은 열매 나눔

## 48 지구촌 카페

- 더블레싱처치 창립예배 및 지구촌교회 동역교회 조인식
- 군부대 사역의 기쁨
- 약속

## 54 지구촌사회복지재단

Basket Dream, 발달장애인 농구단 「바스켓 드림」을 아시나요?

## 56 말복 챌린지

말복 챌린지, 2주간의 기록

## 60 식탁에 내리는 단비

초여름의 맛 '참외 잠봉 리코타 샐러드'

## 62 지구촌 토티

AI시대의 동반자 AI Agent

## 65 마음 치유 클리닉

- 엄마와 아들
- 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겨자씨만한 믿음)

## 68 지구촌 갤러리

- 지구촌 미술회 제27회 바실레이아 정기전
- 윤윤숙 작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70 시네마스토리

데어 윌 비 블러드(There Will Be Blood)

## 72 의학상식

운동 싫어하세요? 관찰아요~



## 우리의 과거

### 빌립보서 3:13



이동원 원로목사

오늘(5월 25일) 주일은 김우준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담임목자로 취임하시는 날입니다. 김우준 목사님이 지구촌 공동체의 리더로 우리에게 오심을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인 정현종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그는/그의 과거와/현재와/그리고/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김우준 목사님의 일생을 통해 준비하신 것을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 사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란히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13절에서 지금까지 그의 과거를 결산하는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잡아야 할 것을 다 잡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잡고 붙들어야 할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그는 뒤에 있는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있는 목표를 붙들기 위해 자신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과거에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었던 그의 과거를 그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보니 그의 대단한 과거는 실로 배설물에 지나지 않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빌 3:5-6에서 그는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 3:8에서 그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후에 보니 이런 과거의 스펙과 자랑스러움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그의 과거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만이 그의 의요 사랑이요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 주일에 잠시 우리 지구촌 공동체의 과거를 돌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과거 중에는 부끄러운 것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도자들과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의 죄성과 부패성이 초래한 연약함 때문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자랑스러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창립 10주년에 1만 5천여 명의 구원받은 가족을 갖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창립 15주년에 3만 명의 영적 가족을 갖게 하신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해마다 국내외로 4천 명 이상의 지체들이 흩어져 도시들과 각 도시 안의 60여 지역교회들을 블레싱 사역으로 섬기게 하시고, 해마다 가을이면 블레싱 전도사역으로 잃어버린 천여 명 이상의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전도명령과 함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그동안 12개의 사회복지 기관을 세워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31년 동안 잘 다듬어진 제자 훈련 <길 공부>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게 하시고 목장 훈련과 목장 생활을 통하여 영혼들을 섬기는 큰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심이 바로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국내 15개 동역교회, 해외 7개 동역교회 포함 22여 개 이상의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필그림 하우스 영성 센터를 선물로 주시어서 한국 교회에 영성의 모태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해마다 2만여 명의 천로역정 순례자들이 천로역정 영성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2천여 목장 교회를 통하여 <평신도 선교사들>을 육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마을을 통하여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도 바로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의 비전인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의 통로로

지난 31년의 세월 동안 쓰임 받게 하신 것, 바로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바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12절).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우리 주변 인구는 모두 30만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30만의 10분의 1인 3만 명을 전도하고, 그중 10분의 1인 3천 명을 제자로 삼고, 그중에서 다시 10분의 1인 3백 명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하는 333비전을 현실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일차적 목표를 우리는 주의 은혜로 처음 20년 내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지와 분당의 인구는 합하면 처음 창립될 때에 비하여 3배 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전도와 선교에 특별한 소명을 갖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리더로 사역해 오신 김우준 목사님을 우리 지구촌교회 합선의 선장으로 보내 주신 것을 저는 때가 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과거의 성공을 잊어야 합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앞에 있는 새로운 비전은 이제 앞으로 김우준 목사님께서 제시하시고 보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선교는 본래 바울이 소아시아(튀르키예 쪽)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빌립보 포함) 사람의 비전을 보여 주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대신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어 네압볼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달하여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을 전도함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복음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창립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지구촌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 우리의 미래

## 빌립보서 3:14

김우준 담임목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제가 아직 10대 소년이었을 때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낮이 나간 채 말씀에 사로잡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촌교회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바라봐야 하는 꾀대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꾀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다 해도 달린 만큼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바라봐야 하는 꾀대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참된 꾀대를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장 중심에서부터 뿜어오르고 있는 단 하나의 열정, 단 하나의 비전,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꿈을 세 개의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W. W. W입니다. 무엇이 약자입니까? World, Wide, Worship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몰랐다가 오늘 처음으로 깨달

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촌교회는 이미 지난 31년 동안 ‘민족치유 세상 변화’라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구촌교회 블레싱 사역, 복지 사역, 목장 사역,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의 기도, 눈물, 헌신, 섬김, 희생 없이 어떻게 오늘날의 지구촌교회가 가능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품고 함께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새로운 비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족치유 세상 변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집중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상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 내고 복음을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참으로 애석하게 오늘날 수많은 성도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하나같이 다 친절하고 밝게 모든 분의 인품이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집에 가고, 가정에 가며, 친구를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성경은 절대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며 그리고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주위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이 공개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렸고, 성실하게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면 모든 사람의 인품이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말을 하는지, 직장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위 이웃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지, 내가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쫓 빼달았네요”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난감해하거나 꿀 먹은 벙어리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일상을 공유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더라면, 우리의 가정생활, 부부 생활, 자녀교육, 직장생활, 우리 대인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친구들과 밥 먹을 때, 길가에서 혼자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숨결 소리를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뚜렷이 보여서 나의 일상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압도되어 전율하고 예배했던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혹시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 원론적이기만 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난 10년, 30년, 50년 이상 교회 문턱만 넘나드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기왕에 한번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창립 31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뚜렷이 보여서 집에서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신나게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우리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

##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MET2025 단기선교



박형균 목사

예년보다 더 길고 더울 것이라 전망되는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Mission Explosion Team의 약자인 'MET 국내/해외 단기선교'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헌신과 열정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9-20)라고 하시며 ‘지상 대명령’(Great Commission)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MET 단기선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국내의 곳곳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전해질 것입니다.

### 전도를 통해 얻는 기쁨과 감격

‘난 전도를 해 본 적 없는데, 내가 그곳에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것으로 과연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우리의 말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에 강력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뿐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오병이어 기적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상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귀한 경험이 됩니다. 사역 현장에 나가려 할 때 부담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사역 현장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 **현장에서의 만남과 우리의 역할**

올해 MET2025는 6월 15일 ‘국내/해외선교 파송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 수천 명의 성도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는 농촌 마을, 도시 상가, 아파트촌 그리고 해외의 여러 사역자들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MET 선교팀들은 그동안 준비한 다양한 사역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이 담긴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만나 섬기는 한 사람, 한 가정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는 여러 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 손을 잡아 주는 작은 손길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단기선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모든 성도가 이 사역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중보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날 때마다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선교지에서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삶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선교**

올여름, 지구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MET 단기선교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 되어, 우리 일생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 목자되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계절에……



강지윤F 마을장

수지 8지구

저는 나의 주님을 향한 열심이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 받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모태신앙의 고질적 문제점인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인 것 같은 복음.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동생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사건은 내가 주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었었는데 나를 주님의 일에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을 고백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가족을 잃는 고난과 그로 인한 가족 해체라는 상처를 주실 수 있느냐며,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며 왜 그러시는 거냐며, 예배 때마다 냉소에서 어느 순간 따지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며 나의 나뒀의 자리에서 이탈한 나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확증 하셨느니라 (로마서 5:8).

학창 시절 매주 하던 성경 암송을 통해 달달 외우고 있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지만 난 너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나의 아들을 내주었다. 너도 나를 사랑한다 하지 않았니. 난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주었는데

다시 일어나렴, 나와 같이 내 손을 잡고 가자. 나로 인해 충만하며 기쁨 가득하던 너의 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다시 나에게, 이제 그만 헤매고 너의 자리로, 내 옆자리인 너의 자리로 돌아오렴”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변했거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했을지라도 이미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동시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라고 한 것처럼 나는 생각보다 더 부족하고 더 악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남음을 압니다. 그 후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고 이미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돌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겪은 남편의 암 판정에도 이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며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증명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면 나를 내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들며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음을 내딛습니다.

#### **남편의 암 수술 시간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했던 말씀.**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몸도 맘도 피폐했던 그 시간에도, 남편의 손을 잡고 침묵으로 울며 두려웠던 그 순간에도 함께하셨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는 것과,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CS 루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압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 일을 이루실 때 그저 고난 중에만 빠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남편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까지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 속에서 한 번도 내 손을 놓치 않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세상이 마냥 편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가정일로 회사업무로 교회사역으로 너무나 분주하지만 그러는 와중 교회적으로, 아이의 입시로, 가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우울감을 겪고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나에게 다시 또 길을 보여 주심을 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기도로 말씀으로 사역으로 복음을 살아 내는 지구촌의 복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나를 여기 지구촌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살아 내려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래도 나는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나의 주변을 위해 함께 울며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복음이 흥했던 나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함이 나의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다시 찾은 예배의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스펙터클하고 기대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복음의 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목장 식구들과 나누며 주변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 기쁨과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기쁨이 됩니다.

이제는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다음 세대를 보면 가슴이 뜨겁고 안타까움의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하며 마음을 먼저 내주고 손을 잡게 하시는 주님. 아직도 그 사건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속시원히 여쭙어보고 싶은 것들 중 한 가지 이지만,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니 온전히 선택하신 주님을 신뢰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계절에 함께하심을……. **지구촌**

5월호 10페이지 '내 평생의 말씀' 기사에서 필자 성명 오류가 있었습니다.  
필자 성명을 '류소라A'가 아닌 '우영미 전도사'로 바로잡습니다.



## 반듯한 신앙인 되기

하재웅A | 분당9지구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정성을 다해 따르며 실천 하리라 굳게 마음먹고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새 가족의 길 과정을 들어서니 생각과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 없는 형식이 없듯이 반듯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올바르게 모시고 섬기는 성심과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사명감을 통감합니다. 차근차근 교리를 배우고 마음에 익혀 저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 주는 새 가족의 품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안기겠습니다. **지구촌**

## 깨달아지는 기쁨

성순경A | 분당11지구



초신자로서 영적으로 아기 단계에서 하나하나 배워 가고 있습니다. 처음 새 생명의 길보다 이번 새 가족의 길이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잘 알아듣기 위해 예습을 하고 갑니다. 요한복음 1장 6절-8절에 나오는 요한이 침례 요한인지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 제자 요한인지 몰랐는데 수업하며 목사님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셔서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 읽기와 예배드릴 때 마음가짐 방법을 공부하며 하나하나 배워 가며 영적으로 걸음마처럼 알아 가는 기쁨과 뿌듯함이 큼니다.

하루를 일상적인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성경 읽기와 경건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점 매우 괴롭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구촌**

##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심범준 목자

수지10지구 동탄A마을 c동탄1 목장

“Not Success, But Service!”(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은 1912년 미국선교사로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다가 54세에 영양실조로 소천한 서서핑 선교사(본명: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1880-1934)가 한 말이다.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을 섬기며 감동적인 삶을 살았다.

나는 목자를 하며 늘 배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다른 목장들이 배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되었다. 열정을 갖고 목장을 관리했지만 인원은 늘 제자리였다. 무엇이 문제일까를 깊이 고민했다. 그러다가 서서핑 선교사의 일대기 『천국에서 만납시다』에서 그녀의 평생 섬김의 모습을 보며 목장 성공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겸손히 목장원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금씩 인원이 증가했고 급기야 배가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부족하지만 우리 목장이 배가하게 된 스토리를 소개해 본다.

**첫째, 고난 중에 있는 목장원들을 위로하며 격려했다.**

한 그루의 대추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지만 비바람도 필요하기에 고난이 숨겨진 축복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고 했다. 고난과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자고 했다.

**둘째, 우리 목장원 모두가 예비목자교육과 전도폭발훈련을 받도록 권면했다.**

훈련은 힘든 것이어서 자칫 목장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예민한 것이지만 목자가 인기 발언만 할 수는 없었다. 목자의 역할은 목장원들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성령의 검을 갖고 사탄과 대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목자가 먼저 전폭훈련 5단계까지 수료하였고

목장원 3명이 전폭훈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워지고 있다. 훈련을 통해 목장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느낌이다.

**셋째, 목장원들의 중보기도제목들이 응답받으면서 목장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

오랫동안 출산에 대한 갈망이 있던 성도가 목장원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출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전도의 중요성을 계속 심어 주었다.**

목자는 정년퇴임 후 선교사 준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로 취업하여 택시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면서 겪은 감동적인 수많은 사연들을 목장식구들에게 글로 전달하여 도전받게 하였다. 전도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 주었다.

**다섯째, 언제든지 배가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암세포는 건강한 세포와는 달리 기형적으로 성장하여 생명을 위협하기에 건강한 배가는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때에 배가되어 두 목장 모두 건강하게 모임을 이어 가고 있다.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 말씀하시고 축복하신다. 리더십 (leadership)에 ship이 붙는 이유는 리더는 목장이라는 한 배를 타며 영적공동체를 이끄는 항해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목장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 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리더가 되라고 말이다. 뒤에서 밀어 주고 앞에서 끌어야만 가는 리어가 신앙인이 되지 말고 혼자서도 잘 가는 자전거 신앙을 갖는 목장원들이 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로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목장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지구촌**

## 마더와이즈

### 아내와 엄마의 역할도 사명입니다



이동희S

분당 9지구 정든A마을 매듭목장

지난 4월 24일 <마더와이즈-지혜>를 수료하며 지난 8주를 돌아봅니다. 제 마음에 3가지의 미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 1. 엄마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게 해 준 ‘마더와이즈’

지난 1월, 계획 없이 생긴 아이 소식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하나님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더와이즈-지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고백은 확신이 되어 하나님께 아이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선하고 완벽한지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첫날, 이애리 전도사님께서 “엄마라는 역할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임을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과 교재를 통해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목사님, 전도사님, 함께하는 어머님들이 날라(태명)를 위해 함께 중보 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지를 느끼고 누리는 8주를 보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사역인지 매일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을 주시고 자부심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2.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해 준 ‘마더와이즈’

교재를 공부하며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이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였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매순간 예습하며 느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좌절이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인지요. 부족한 내가 아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꽃대를 세우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한 8주였습니다.

### 3. 중보의 힘을 느끼게 해 준 ‘마더와이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며 기도로 마무리 되는 마더와이즈. 그 덕분에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로가 되는지 느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조장님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묶어 주신 자매님들과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용기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목상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기에 8주 동안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이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니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기에 이번 한 학기 마더와이즈 모든 자매님들과 매주 목요일 아침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알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끝난 이후에도 마더와이즈를 함께한 모든 어머니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이끄심 따라, 가정과 세계 한 모든 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담대히 믿으며 매일의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구촌**



## 마더와이즈

### 지혜, 변화의 시작



전병선B

수지 6지구 5가디너스3

영아촌 예배 때 <마더와이즈 - 지혜>가 개강한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다.

쉽 없이 <마더와이즈 - 자유와 회복>을 들었기에 몇 회 쉬고 수강하려고 했으나, 신청자가 적다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머릿수를 채울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당연히 은혜롭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우리 가정이 변화될 만큼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남편과 자녀들을 향한 나의 언행과 마음가짐이 많이 변화되었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올려야겠다고 마음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받는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 특히 나에게 고난과 시험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많이 찾아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남편과 각자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찾아온 정보들을 나열하며 나은 것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남편과 각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 성경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결정하게 되었다.

첫째가 학기 중이고 막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생각도 안 했을 특새를 다섯 식구 모두가 완주하였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삶을 살겠다는 변화의 기념비적인 시작이었다.

‘지혜’를 통해 어머니의 참 역할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와 회개를 알려 주고, 아이들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알려 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마음으로 받아 들였기에 가능한 시작이었다.

교재 본문 중 특히 머리와 마음을 요동치게 하던 문장이다.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생명까지 기꺼이 내려놓겠는가?’라는 질문이었다.

한동안 묵상하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긍정의 대답을 기꺼이 하는 내가 되길 소망하게 되었다. 예전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이 아닌, ‘자녀들의 삶을 각자의 소망대로 이루어가도록...’이라고 기도하던 엄마였음을 회개했다. 또한 진심으로 회개하면 세상적인 엄마였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거라 믿으며 소원했다. 자녀들의 삶에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엄마로서 누리는 축복을 당연한 것이 아닌 매 순간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내가 되길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하였다.

나는 예수님이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마더와이즈 - 지혜’의 시간 동안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축복의 은혜가 넘쳐 남편과 아이들에게 온유함이 흘러가길 기대해 본다.



매주 알맞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전해 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 다양한 헌신으로 마더와이즈를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4조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날 위해 이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자구촌**

## 경청과 소통



### 이진환 캠퍼스

대학지구 분당 10캠퍼스 미래알 목장

‘WAVE ACADEMY’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주간의 강의를 통해 제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목장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과 귀를 닫고 살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조금씩 마음이 문드러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불통을 벗어나 소통으로 회복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않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낸 공기의 진동이 제 고막을 때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의 말을 듣고 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담지 않고, 제 나름대로 그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결정하며 그에게 해 줄 말만 고민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절대적으로 경청하여 주는 것이 진정한 들음이라고 합니다.

목자로서 목장의 목원들에게는 물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일상 속 마주하는 관계에서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나 스스로에게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은, 마치 남에게 그리하듯 나에게마저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목소리에 ‘그랬구나’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기에 마음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과 하나 됨, 관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들음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넘겨잡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롯이 들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관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회복과 화목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소리에, 또한 스스로에게도 귀 기울일 여유를 주심

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부심에서 오는 넉넉함을 가지고, 경청과 돌봄을 실천하겠습니다. 지구촌



젊은이목장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토요일 3주간 웨이브 아카데미(Wave Academy)를 진행했습니다. <마음 돌봄> 책의 저자인 정진 교수(4611Lab 대표)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된 이번 특강을 통해 지구촌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고, 건강한 내면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젊은이목장은 마음을 돌아볼 여유를 갖기 어려운 바쁜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며 크리스천의 건강한 자아를 누리고, 아파하는 주변 영혼들을 향해 돌봄의 손길을 건네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이주민 선교: 우리 이웃으로 찾아온 땅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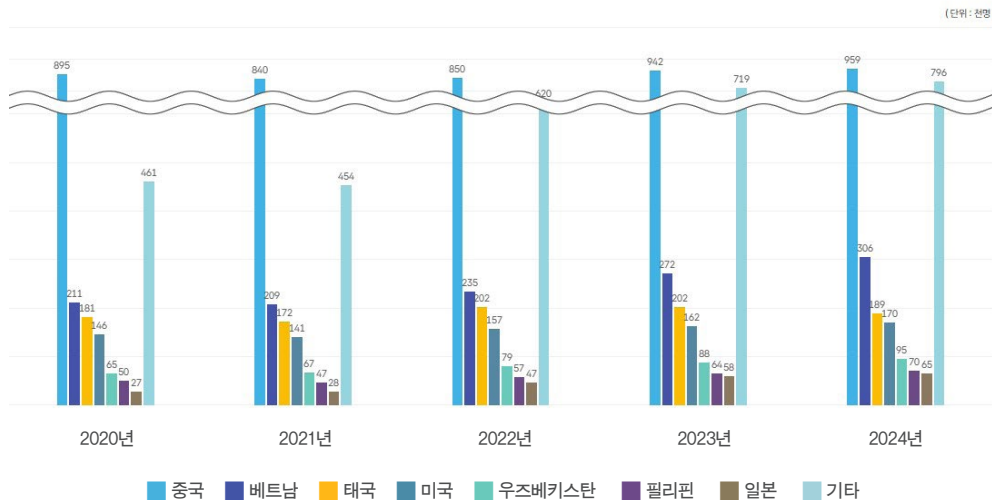


박 스탠리 목사  
글로벌목장센터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변하지 않지만 그 선교를 수행하는 방법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선두에 서서,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왔고, 최근에는 브라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교회는 특히 젊은 선교사 세대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눈에 띄는 한 가지 변화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현상은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증가하는 외국인인구

최근 몇 년 사이에 길거리나 식당에서 외국인을 마주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그들의 배경도 다양화되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그만큼 증가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도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65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2%에 해당합니다. 서류미비자(약 40만 명)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국적 상위 5개국은 중국(958,959명), 베트남(305,936명), 태국(188,770명), 미국(170,251명), 우즈베키스탄(94,893명)입니다. (법무부 통계정보, 2024년 12월)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소폭 감소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한국의 이민자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The Chosun daily, 2024.11.20). 이 추세라면 한국사회의 이주민 수가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9.5-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한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한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노동력의 수요 때문일 것입니다.

### 한국 교회의 선교 패러다임 전환

한국 교회는 이러한 외국인 인구의 증가를 인식하고 선교의 초점과 방법론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개신교 각 교단 총회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선교 방향성과 목표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즉 남반구 국가들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둘째, 20~30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선교입니다.**

**셋째,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교입니다.**

**넷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입니다.**



KWMA '한국 국제사역자 컨퍼런스' (2025년 4월 8일)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주민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꼭 멀리 떠나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된 이주민들에게, 바로 우리 동네에서 선교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선교에 비해 재정적인 면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KWMA의 네 번째 목표인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까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약 50%가 20~30대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동남아시아, 남아프리카 등 남반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다문화목장 이야기

1995년 영어예배부를 시작으로 다문화 사역을 시작한 지구촌교회는 현재 몽골어, 이주자,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예배부까지 5개의 다문화목장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이주민의 언어로 예배와 상담, 신앙교육을 함과 동시에 지역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실을 개방하여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자 전도팀이 섬기는 길거리 전도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들이 복음으로 인도되어 성장하는 유용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국민들과의 교제나 한국어 교실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만,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이 자라 목자로 섬기면서 신학교 진학까지 꿈꾸는 이주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A 형제는 길거리 전도를 통해 교회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한국 자매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현재 일과 가정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 한국 신학교 입학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W 형제 또한 길거리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구촌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목자 훈련을 마친 후 회사에서 미얀마 형제들과 함께 매주 목장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W 형제는 한국 신학교에 입학해 목사가 되어 미얀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실천을 위한 제안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실천의 첫 단계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별에 대한 성찰’입니다. 먼저 이주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북미나 유럽 선진국에서 온 유럽계 이주민과 아프리카나 동남아, 중동에서 온 이주민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비서구권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차별적 태도와 편견입니다. 유럽계 외국인들은 이주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황스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는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유럽계 이주민은 복음이나 사랑, 돌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캐나다, 유럽 출신의 이주민 중에도 상처받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둘째,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선교는 여름 단기선교 기간 또는 특별한 시기에만 해외로 나가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이 땅에 우리의 이웃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눈을 열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자원의 투자와 활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국내 이주민 선교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이주민 선교를 명하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자원을 이 사역에 투자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결국 사역의 우선순위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 MET2025 땅끝까지 살롬!

해외선교부 권진 전도사

### MET2025 해외단기선교와 함께 하는 6월의 일정

MET2025 해외단기선교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해외단기선교는 41개팀, 약 500여 명의 지구촌 성도들이 ‘땅끝까지 살롬!’이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19개국의 선교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여름, 나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하게 될 지구촌 성도님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6월의 지구촌 선교 행사 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 1) MET2025 전체 오리엔테이션 - 2025년 6월 7일(토)

6월 7일 토요일, 해외선교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분당채플 본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해외선교부 이명준 목사님께서 이번 MET2025 해외단기선교의 주제인 ‘땅끝까지 살롬’의 의미를 강의해 주십니다. 이어서 서일원 목사님과 박기선 목사님께서 각각 ‘단기선교의 성경적 근거’, ‘단기선교의 실재’라는 주제로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MET2025의 주제를 깊이 이해하고, 단기선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2) MET2025 국내/해외 선교기도회 - 2025년 6월 13일(금)

6월 13일 금요일 기도회는 MET2025 국내/해외 선교기도회로 진행됩니다. MET2025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열 사람의 기도 후원자를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기도회는 국내와 해외의 선교지로 나아가게 될 팀 소개 영상과 그 팀들이 선교지에서 직접 공연하게 될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게 되실 성도님들과 기도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MET2025 국내/해외 선교기도회는 올여름 국내와 해외에서 진행될 MET2025를 기도로 준비하는 뜨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 **3) MET2025 국내/해외 파송예배 - 2025년 6월 15일(주일)**

6월 15일 주일은 MET2025 국내/해외 파송예배로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로 파송했듯이, 지구촌교회의 성도들 또한 국내와 해외 선교지로 나아가는 모든 선교 팀원들을 기도로 파송하게 됩니다.

MET2025 해외단기선교가 6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구촌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 지구촌교회 제 4대 김우준 담임목사 취임

2025년 5월 25일 주일은 지구촌교회에 특별한 날이었다. 지구촌 창립 31주년을 비롯하여 지구촌 교회 제4대 김우준 담임목사 취임식 및 영구제직 임명식이 있었다. 특히 이날 오후 6시에 있었던 김우준 담임목사 취임 예배는 10개월간 담임목사의 부재를 경험하며 눈물로 기도해 왔던 성도들에게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김우준 목사는 UC버클리 학부, 스탠퍼드 석사,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치신 인재로 평가되었다.

그는 과테말라에서 성장하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에 능통하며, 글로벌한 경험과 현장 감각을 갖춘 목회자이다.

이번 창빙을 통해 지구촌교회는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첫 발걸음을 기대하고 있다.

창빙 사역을 위해 지구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수고한 미래준비위원들이, 그동안 눈물과 기도와 믿음의 결실로 이어진 그들의 여정을 들어 보자 **지구촌**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를 찾아가는 과정

미래준비위원회



### I. 미래준비위원회의 출범, 위원회 구성과 역할 분담

지구촌교회의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미래준비위원회(이하 미준위)는 임시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청빙, 시스템 개선 및 분립, 건축의 3개 분야로 나뉘어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미준위는 모든 절차가 하나님 중심,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집중되도록 기도하며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매주 정기 모임과 소그룹 분과 모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며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였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개인적 호불호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기준으로 의사 결정을 하였고, 정기회의 외에도 필요시 워크숍과 사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타 교회 사례들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청빙의 경우, 모든 위원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합의된 내용 외에는 비밀 유지 서약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였습니다.

## II. 청빙의 비전과 목표

미준위는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사역을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이 예비하신 목자를 세우고자 모든 가능성과 방향을 열어 두고 청빙의 전 과정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였습니다. 청빙에 앞서 정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8,263명이 참여하는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설문에는 목회자의 성품, 설교 능력, 영성, 연령대, 경력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여, 공동체의 기대를 구체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성도들은 목회자의 성품과 청렴성,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0%가 이를 최우선 요소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설교 능력(42%), 영성(40%)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선호하는 담임목사 연령대는 50대 초중반이 가장 많았으며, 지구촌교회의 비전(DNA)을 깊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규모와 사역 구조에 적합한 리더십과 목장 중심 사역 경험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III. 후보자 추천과 선별 절차

후보자는 12명의 내부 부목사, 마을장 및 목자로 섬기시는 성도 518명, 미래준비위원 19명의 무기명 투표로 선별된 외부 목회자 5명의 추천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내부 부목사는 위원들 간 제비뽑기를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어느 부목사님이 선정되었는지는 추천서 접수를 담당한 위원과 연락을 맡은 위원장 2인 외에는 청빙이 종료된 지금 시점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추천자는 정해진 양식과 기한을 준수하여 추천하였고 청빙 분과에서는 모든 추천을 수합하여 각 추천별 중복 여부 및 사전 검증 등을 거쳐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구촌교회 제 4대 담임목사님 후보는 34명으로 최종 집계 되었습니다.

#### IV. 1~3차 평가의 기준 확립 및 평가 진행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청빙에 대해 정교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도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물론 온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 등 실제로 청빙을 경험한 교회들의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듭하면서 공정성과 실효성이 높은 평가 기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본격적인 평가는 청빙 후보자의 기본 이력과 추천서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들은 해당 후보자의 목회 경력뿐 아니라, 실제 교회 내에서의 리더십 스타일과 공동체 내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각 위원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정교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자료와 사전에 취합된 추천서 등의 자료 외에도 인터넷, 설교 영상, 소속 교회 홈페이지 등을 직접 조사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1차 평가는 정량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으며, 특히 연령과 담임 목회 경력은 청빙 후 지속적인 사역 가능성과 리더십 전환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상위 13명의 청빙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 진행된 2차 평가는, 전체 위원들을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네다섯 분씩 정도 목사님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기초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다시 전체 위원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우준 목사님 등 위원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목사님에 대해서는 목회데이터연구소를 통하여 평판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목사님에 대한 검증과 교회 내·외부의 객관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며, 특정 인물에 대한 오해나 왜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증의 과정에는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사모와 자녀의 인품과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내 가족 중심 문화와 공동체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차 평가부터는 정성적 요소를 비중 있게 적용하였으며, 각 위원은 개별적으로 대상자의 설교를 들은 후, 해당 메시지의 복음 중심성, 본문 해석력, 적용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후보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추천 받아 진행되어 당사자들도 평가의

대상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위원들은 더욱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평가의 과정에 임했고 토론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에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설교의 논리적 구성, 실제적 예화 사용, 청중과의 공감 능력, 복음 진술의 명확성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개별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전략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김우준 목사님은 실제 사역 현장에서 청소년 및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예배와 양육 시스템을 구축해 온 경험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2차 평가에 있어서 평가 항목은 단순히 수치화된 점수에 그치지 않고, 성도와 동역자들과의 관계, 성품의 지속성, 사역의 열매가 공동체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 비계량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전조사에 따르면 성도 다수는 ‘출신 교회 제한 없이 청빙되어야 한다’고 답하였고, ‘외부 추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구촌교회의 정체성(DNA)을 잘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는지, 또 기존 목장 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를 원했고, 이는 향후 담임 목사 선정의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청빙 대상자의 리더십 스타일은 다면적 평가(예: 리더-팔로워 관계, 회의 운영 방식, 협업 경험 등)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목회 스킬 외의 전반적인 조직 운영 능력도 검토되었습니다.

후보자별 설교 평가 기준은 단순한 전달력 외에도 회중의 영적 반응, 회중 몰입도, 핵심 메시지 반복 및 적용 예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설교 영상 감상 후 자유롭게 소감과 우려를 공유하고, 개인 평가 점수와의 차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의 입체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2차 평가 후 공정한 표결의 과정을 통하여 총 다섯 분의 후보자가 선정되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3차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3차 평가에서는 이미 잘 알게 된 후보 목사님들에 대하여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목사님이신지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3차 평가에서는 토론보다는 위원들 각각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특정 목사님에 대한 견해를 가감 없이 발표하고 또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평가

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두 분의 후보자는 전 위원이 기도와 투표를 반복함으로 만장일치로 선정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1차 평가는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0점 만점으로 연령, 경력, 내부 사역 경험 등을 항목별로 점수화하였습니다. 정량 평가는 수치화된 항목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어, 최고·최저 점수 제거 등 통계적 왜곡을 방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2차 평가는 심층 정성 평가로 구성되어, 각 위원이 설교 샘플, 추천서, 평판 자료 등을 분석 하였습니다. 정성평가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나, 설교 스타일, 성품의 온화함, 공동체 내 관계의 깊이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심도 있게 다루며 공동체성과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차 평가에서는 최종으로 인원을 선정해서 도출한 후, 복음적 설교력, 인품, 리더십, 교회 비전과의 적합성 등 종합적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위원들 간 서로의 점수를 알지 못하도록 점수 취합 통로를 일원화하였고, 각 후보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여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3차 평가에서는 설교의 신학적 검증에 대해 청빙위원회에서 촉탁한 외부 자문위원이 평가에 참여 하였으며 그 결과, 2명의 후보자를 낙점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도 좋을 정도로 훌륭하고 겸손 하신 분이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 V. 최종 후보 결정과 만장일치

청빙 일정은 약 6개월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래준비위원회는 모든 회의록을 문서화하고 관련 위원들과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누적시키는 과정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정량 정성 평가 외에도 위원들 간 토론의 과정에서 최종 후보자의 공동체 수용 가능성, 향후 사역의 안정성, 교회 내 갈등 발생 가능성, 목장 시스템과의 접목 능력, 온라인 및 글로벌 사역에 대한 이해도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종 평가 단계에서는 후보자의 위기관리 능력, 윤리적 기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등도 함께 점검하며 교회 대표로서의 공적 이미지 관리 능력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종 후보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장일치는 지구촌교회 역사상 드문 사례로 알고 있으며, 공동체 전체에 큰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회는 기도로 마음을 모았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위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김우준 목사님을 확정된 후 미래준비위원 전원이 연서한 청빙 요청서와 함께 목사님께 청빙 수락을 요청하였고, 목사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백지에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우준 목사님께서 청빙 수락 의견을 주실 때까지 미래준비위원 전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십사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마침내 수락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빙 절차는 1~3차까지 진행한 단순한 비교나 서열화가 아닌, 복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도하며 지구촌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당신께서 예비해 놓으신 목사님께 위원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결정을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구촌**

## 미래준비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이원구 장로 | 분당 1지구



샬롬!! 하나님께 열 가지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1.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보다 지구촌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2. 교회 내 혼란스러운 10개월이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3. 주님 앞에 준비되고 충성 및 헌신하며 주님이 맡기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목양의 심장을 지니신 김우준목사님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모든 것이 생소하고 무에서 시작한 미준위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임무와 과업을 완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5.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면서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6. 불신과 비판적 말에 의해 분열의 영이 역사하였던 사무총회, 제직회가 생산적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서로 확인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7. 지구촌교회 미래의 소망과 사명, 비전을 다시 꿈꿀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 원로목사님, 부목사님, 사역자 등 모두 어려운 환경과 위기 속에서 묵묵히 섬겨 주시고 성도들도 말보다 성숙한 인내와 행동으로 본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9.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우선시함으로 깨어 있는 교회로 더욱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변화 갈망과 다음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뜨겁고 사랑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사합니다 **지구촌**

## 총무

윤석완 집사 | 분당 청소년



작년 10월부터 주말을 반납하고 미준위 활동하는 것이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조그만 능력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구촌교회에서 받은 많은 사랑과 보살핌의 빛을 조금 갚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구촌**

## 시스템 분과장

정동련 장로 | 수지5지구



처음 미준위를 시작할 때는 청빙과 시스템개선 사역이 부담스럽게 다가와 바쁘고 심각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은혜로 부여 주시는 아이디어와 각각의 지체가 다양한 특징과 달란트로 협력하여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축복이 있음을 느끼며 안정되고 기뻐하게 되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이레’에서 ‘여호와 삼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감사합니다. **지구촌**

## 건축 분과장

강민봉 집사 | 수지 청소년



청소년목자로만 18년간 섬기다 미준위를 권유받고는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가정 그리고 교회. 이 삼각 틀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사는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늘 지지해 주신 교육목장과 지구목장께 감사드리고 건축분과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저녁 시간 중복으로 6개월간 한 번도 참석 못한 형제목장에 송구합니다. 건축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께 투명하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시스템

고길순 집사 | 분당 13지구



시편 133편 1 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공동체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구촌**

시스템

김사라 집사 | 수지 6지구



“믿음은 겨울의 꽃봉오리 속에서 여름을 감지하며 꽃이 떨어지기 전부터 이미 그 열매를 맛본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말입니다. 8개월간의 주말을 모두 미준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름의 꽃과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중보해 주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미준위에 뽑힌 첫 일주일간은 너무 부담스러워 잠을 깊게 자지 못했지만 지금은 신실하고 유능한 성도님들과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시스템

김성약 | 청년 2지구



미준위를 통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역 위해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다시 한 명의 평신도로 돌아가 지구촌교회 30년 미래를 위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사랑하는 교회의 30년을 준비하는 미준위에 섬길 자격이 없는 자라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매 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찾고자 고민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정 가운데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개입하시는 순간을 목도하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경이로움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19명의 미준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치열하게 개진하며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며 지구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의견이 미준위회의마다 나누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더해 갈수록 함께하신 미준위원님들을 신앙적, 인격적 성숙함을 보며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미준위에 대한 평가가 성도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20번째 미준위원이 되어서 예배때 마다 목장모임마다 소그룹 모임마다 저희들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해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고 누추한 자로서 사랑하는 교회의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구촌**



쉽 없이 달려왔던 지난 8개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각처에 흠어져 있던 19명을 불러 모으사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는 일에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 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께서 맡겨 주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섬기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만날 때마다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고 격려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여러 교역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미래준비위원들의 가족분(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구촌**

건축

송혜신 권사 | 수지 어린이



오늘이 있기까지 인내하시며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함께한 미준위원님들과 사역자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쓰실 기회를 달라는 주님의 마음에 순종했을 뿐인데, 좋은 만남과 협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과정을 직접 보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모든 사역자님과 성도님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지구촌

건축

오예지 | 대학지구



먼저 미래준비위원회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시고 같이 기다려 주신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 물심양면 다방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저희 엄마 이숙영 권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처음 위원회 구성 때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이 지금은 감사로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미래준비위원회를 하면서 마치 광야를 걷고 있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의 구성하는 일이 너무 막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느껴졌고 청빙이라는 열매로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예비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다음 세대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며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청빙

이소영 집사 | 수지 미취학



미준위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시간 가운데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역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조리력, 기억력과 표현력이 부족한 제가 제비 뽑힌 순간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성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나라”는 잠언 말씀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말씀에 힘을 얻어 주가 주시는 힘, 지혜, 능력으로 배워 가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미래준비위원회의 8개월간의 여정은 축복과 은혜의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합니다. 참으로 특별하고 적절하고 합당한 19명을 뽑으셔서 함께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중에 포함되는 영광을 얻어 작은 부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기간 동안 응원과 격려의 말씀과 함께 중보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미준위를 하면서 제 기도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담임목사님 청빙, 시스템 개선, 건축, 분립의 모든 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실수와 개인의 생각이 개입된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함,

인간적인 약함과 같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직회가 끝난 직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직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며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

건축

이혜숙 권사 | 분당 어린이



며칠 전에 QT 시간을 통해 보았던 말씀 중 에스더에게 모르드개가 왕비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마치 저에게 “네가 미준위로 섬기지 않더라도 지구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구촌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에 매우 미약한 저를 동역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이었다. 18명의 동역자들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값지게 사용되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 혼란의 시기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느라 힘쓰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켜 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과로 열매 맺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구촌**

시스템

장은자 권사 | 수지3지구



모든 것이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미준위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두고두고 꺼내 보는 추억의 앨범처럼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지구촌의 회복과 부흥의 새로운 믿음의 장을 여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며~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시고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지금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가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우리 미준위 위원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저의 사랑도 살짝 엮어서 전합니다. **지구촌**

## 시스템

조명선 권사 | 분당 7지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서로 다른 19명이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좌충우돌하며 지내 온 지난 시간들... 울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아온 시간들...

지나고 보니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이었음을 알고 눈물 한 방울~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익숙해진 분주함에서 부담을 내려놓은 뒤로 밀려오는 허전한 마음에 또 눈물 한 방울~ 4대 담임 목사님과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큰 눈물 한 방울~ 주님이 머리되신 지구촌 교회의 미래를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능력의 손에 의탁하며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매일 조금씩 자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로 함께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

## 시스템

조진완 안수집사 | 분당 9지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에 한 톨의 후회함도 없는 알찬 섬김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아쉬운 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쉬움을 남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긴 밤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주님 만나면 같이 회고할 수 있는 추억 거리가 되었기에 감사드리고, 뒤에서 말없이 기도로 동역해 주셨던 숨은 동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좌충우돌 불편할 수 있는 모난 말들을 많이 쏟아 냈지만 큰 그릇으로 다 담아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 청빙

허은철 안수집사 | 분당 6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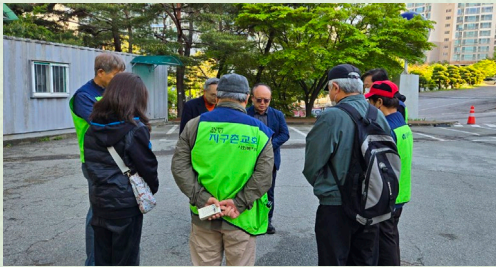


저는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지구촌교회는 제 믿음의 고향이자 학교이자 정체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태와도 같은 지구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부족한 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나라는 효율에 있지 않고 하나됨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신 미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구촌**

## 지구촌교회 안수집사장로회 작은 열매 나눔



### 작은 열매 하나



지구촌안수집사장로회(안장회)는 지난 5월 2일 아침 6시, 수지채플 엠마오 주차장에서 열린, '땅끝까지 나눔회' 독거노인 돕기행사에 참여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전도행사에 동참했다. 지팡이를 짚고, 또는 휠체어를 타고 교통도 불편한 수지채플까지 삼삼오오 몰려든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구석진 그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짙한 연민의 마음이 일었다. 이른 아침인데도 142명의 독거 노인들이 엠마오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찬송가 악보와 전도지를 받아 들고 김호영 장로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예배의 열기가 자못 뜨거웠다.

예배 후 나눔회측이 준비한 간식과 한끼의 식사 비용이 든 봉투를 받고 돌아가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주님께서 이 세상의 '헐벗고 주린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당

부하신 말씀(마태복음25장)이 떠오른다. 2020년 교장 정년 퇴임 후 ‘땅끝까지 나눔회’를 결성하여 노숙인, 독거노인을 주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 김호영 장로와 동역자들의 귀한 섬김 현장에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하신 독거노인분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기를 기도한다.

후원계좌 (농협 301-0295-3912-71, 땅끝까지 나눔회)

## 작은 열매들



지난 5월 18일 오전 10시 안장회 임원진은 기흥구 청덕동 소재 더블레싱처치(담임목사 주우규)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로 동참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주우규 목사는 지구촌교회에서 20여 년간 어린이사역, 홈스쿨링 사역을 마지막으로 개척의 소명을 받았다. 처음에는 지인의 도움으로 지인 소재 건물에서 개척을 하였고, 이후 일년 만에 지금의 청덕동 소재 건물(약 90평)을 임차하여 약간의 리모델링을 한 후 사용하고 있다.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30여 명의 예배 인원, 찬양팀 5명과 악기 3명이 찬양과 율동으로 섬기며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구촌교회의 DNA를 접목시켜 최우선적으로 교육목자들을 세워 나간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주우규 목사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 함께 사역자로 동역하는 사모, 전도사의 뜨거운 영성으로 더블레싱처치가 지역사회에 복음의 통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으며 기도한다. **지구촌**

## 더블레싱처치 창립예배 및 지구촌교회 동역교회 조인식

더블레싱처치 주우규 담임목사는 지구촌교회가 부흥의 길을 걷고 있을 무렵, 성도로 등록하시고 어린이 교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어린이지구와 글로벌홈스쿨링아카데미를 비롯해 다음 세대와 대안교육의 현장에서 24년간 섬겼습니다.

2023년 여름, 홈스쿨링 사역이 활발하게 성장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에 대한 깊은 부담을 주셨습니다. 당시 어떤 지원이나 지구촌이라는 이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여 개척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2).

이 말씀이 더블레싱처치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길 소망하는 의미로 교회 이름을 더블레싱처치라고 지었습니다. 교회의 로고 이미지는 구약시대 성막의 성소를 밝히던 메노라(금 촛대)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합니다. 메노라 아래 8개의 기둥은 교회의 핵심 가치를 나타냅니다.

더블레싱처치는 2024년 1월 21일, 플랫폼시티 개발지역 내 SR테크 사옥 2층 회의실을 주말 예배당으로 빌려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기반도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몇 가정을 보내 주셨습니다.

비록 주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회, 기독교세계관 세미나, 여름캠프 등을 통해 교회는 점점 하나의 공동체로 자라 갔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도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11개월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더블레싱처치는 지방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총회 등록을 마치며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30일, 지구촌교회와 GMN의 동역과 새중양지방회의 주관 아래 ‘더블레싱처치 창립예배 및 지구촌교회 동역교회 조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이동원 원로목사님께서서는 창세기 39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블레싱 마인드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개척의 첫걸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도 기도의 용사들과 물질로 후원하는 손길과 개척을 도울 가정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블레싱처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지구촌교회 안장회, 권사회, 시니어지구, 복지선교부, 청년2지구, 교육목장, 가정사역팀, 경기대 채플, 중보기도팀, 예배사역팀, 분당6지구 로템나무3목장, 그리고 수많은 지구촌의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첫발을 댄 더블레싱처치가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적 교회, 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 군부대 사역의 기쁨



한중욱 장로

분당11지구 한솔부부목장

군대라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때로는 영적으로 메마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군 생활은 고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부대 사역에 동참한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기에 그동안 청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몸으로 얻은 체험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청년 시절부터 영적 감동을 받은 성경구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28)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4부 안내봉사자로 계속 섬기면서도 할 수 있는 영혼구원의 전도 사역을 찾으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군선교와 통일선교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통일선교부 활동은 시간 중복으로 섬기기 쉽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담당 사역자님들을 찾아뵙게 되었고 박형균 목사님과 전평화 전도사님의 자상한 설명을 들으며 용기를 내어서 격주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군부대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는 성경 말씀을 읊조리며 저희 부부는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주 만나니 친해졌고 2주마다 만나는 젊은 청년들이 기다려지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나 떡볶이, 음료 등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 가

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와 교제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젊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군부대 사역은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사역자들과 팀원들이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라”(고전 15:58)는 사도 바울이 한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군복무에 임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교 재학 중에 1, 2학년들을 마치고 입대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요즘 일반 청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본 적이 없거나 성탄절 때에만 교회에 가 보았다는 군인들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예배·신앙은 도전이고, 동시에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군 복무 기간은 비교적 짧은 1년 6개월이지만 이곳에서 예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힘,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생생히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시절에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이후 직장생활 30여 년 동안 경험한, 지키시고 주관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이 청년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시 119:9)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그 은혜를 군부대의 초소 속에서 이어가 고자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시규촌**

## 약속

글 | 김영관 장로



“할아버지, 나 공원에서 놀고 싶어.”

“안 돼! 집에 가야 해.”

“힝! 나 놀고 싶단 말야.”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비밀놀이방 가자.”

(여기서 비밀놀이방이란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실내 어린이 놀이터인데 재운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렀다.)

“힝! 싫은데.”

“왜 싫어? 너 비밀놀이방 좋아했잖아.”

“힝! 거긴 미끄럼틀도 작고 그렇단 말이야.”

“공원 놀이터가 좋단 말야, 나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날씨가 좋고 바깥 놀이가 적당한 이때에 재운이는 하원하면서 곧장 집으로 가기가 싫다. 유치원 앞 커다란 공원은 재운이가 놀기에 아주 좋은 놀이터다. 그렇지만 학원에도 가야 하고 당장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놀고 가게 내버려둘 수도 없다. 다시 한번 달래 보지만 이젠 막무가내 떼를 쓴다. 그 시절에 놀고 싶어 안달 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앞뒤 사정을 볼 때 상황이 허락치 않는다.

“알았어, 그럼 집에 갔다가 숙제도 하고 나서 공원엘 가자.”

일단 집으로 데려가야 하니 가능성 있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알겠어, 할아버지 꼭 가야 해!”

집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제 엄마가 퇴근하고 할아버지는 바톤 터치 해야 한다.

“놀이터에 데려가기로 약속했는데 어찌지?”

“네, 걱정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뒤돌아서 나오는데 영 마음이 불편하다. 약속을 지켜 줘야 하는데…….

집에 와서도 그 약속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마음이 영 불편하고 미안한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톡으로 ‘재윤이 놀이터에 좀 데리고 나가 줘라’고 제 엄마에게 부탁을 했다.

다행히 어두운 저녁이 되었지만 아들 내외는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보내 왔다.

늦게라도 나 대신 약속을 지켜 준 아이들이 고맙다.

“휴, 다행이다.”

손자와의 첫 약속인데 하마터면 신뢰를 잃을 뻔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약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지구촌**



# Basket Dream, 발달장애인 농구단 「바스켓 드림」을 아시나요?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 # 처음 농구공을 잡던 그날

2013년 어느 봄날, 복지관 강당에 모인 열 명 남짓한 친구들이 긴장과 설렘 속에 처음 농구공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던진 첫 슛은 모두 빗나갔지만, 그날 우리에게 ‘함께 꿈을 이루자’라는 약속이 생겼습니다. 비록 장애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바스켓 드림」은 단순히 농구라는 스포츠를 배우는 팀이 아닙니다. 「바스켓 드림」은 우리 재단의 ‘이웃사랑’ 실천이자, 우리 복지관이 꿈꾸는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공 던지는 것도 무서웠어요.” (김○○, 39세)

드리블이나 패스도 몰라 어려웠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한 팀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강점과 열정으로 우리는 함께 뛰는 법을 배워 갑니다. 매년 농구 대회에 참여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패배를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도 키웁니다. 장애인에게 체육은 건강을 넘어, 사회성과 자존감, 삶의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 # 코트 위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바스켓 드림」 선수들은 매주 두 시간 이상 모여 훈련합니다. 복지관에 농구장이 없어 훈련 장소를 찾아 옮겨 다녀야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훈련은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디서 연습해야 할지 몰라 걱정했어요. 지금은 친구들이랑 함께 뛰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김○○, 27세)

농구공을 잡고 땀 흘리는 그 시간, 우리는 진짜 ‘한 팀’이 됩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선수들의 기량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게임의 룰을 익히며 자연스럽게 팀워크를 맞춰 갑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함께 뛰며 서로의 꿈을 위해 기도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때 순간, 우리는 그분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 #우리가 이룬 작은 기적들 그리고 더 행복한 꿈을 꾸게 되는 우리.

2014년 고양시장컵 전국 지적장애인 농구 대회 첫 우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에는 의왕시장배 C그룹 1위 수상,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용인시 대표 출전 등의 성과를 이루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는 하나’라는 소속감을 더욱 단단히 다져 가고 있습니다.



“메달을 걸고 엄마랑 사진 찍을 때, 엄마가 제일 많이 웃었어요.” (유○○, 24세)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익혀 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웃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농구공에 꿈을 담습니다. 농구공 하나에 담긴 우리의 작은 꿈은 함께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바스켓 드림」(Basket Dream), 그 이름처럼.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은 다양한 삶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을 통해 발견, 공감, 강점, 열정, 도전의 가치가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마다 따뜻함이 전해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구촌**

## 말복 챌린지, 2주간의 기록



김민정DD

분당8지구 화평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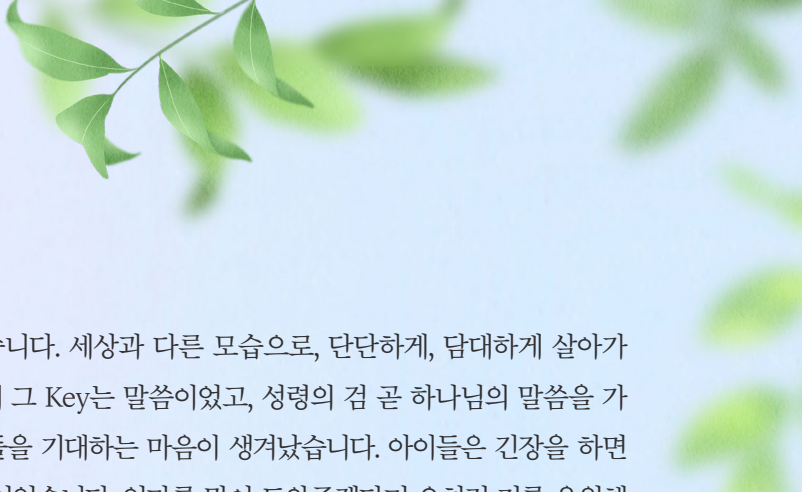
“목자님 가정을 이번 해피패밀리 영상에 담고 싶습니다.”

연락을 받고 전 평소처럼 “네!”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늘 정신없이 복닥거리며 온 가족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보인다는 것이 마치 민낯을 드러내는 것마냥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시로 생겨나는 돌발 상황들을 제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션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순종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고 기도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지만, 이미 한 발짝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명으로 거절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보다 낮가림이 있는 신랑도 오케이! 둘째, 셋째는 너무 좋은데?라고 답했고 막내는 자신이 나오면 교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신이 났습니다. 중3인 큰딸만 저와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큰일을 저지르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처음 미팅을 가졌습니다.



말복 챌린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말씀을 적어 집안 곳곳에 붙이고 암송하고 함께 나누는 2주간의 미션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항상 아이들을 위



해 기도했던 기도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단단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드리는데 그 Key는 말씀이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떠올라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은 긴장을 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큰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를 많이 도와주겠다며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신랑도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 만날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며 서로 나누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예수님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2주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챌린지 시작! 지금 다시 떠올려 봐도 하루도 평탄한 날은 없었습니다. 네 명의 아이들과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스케줄도 제각기 바쁘고, 어느 날은 아픈 아이도 있고 피곤해서 일찍 자 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어서 기분이 상하면 말씀 암송도 나눔에도 브레이크가 걸려 버렸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기 바랐고 그 뒤에 암송과 나눔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기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잘까 하다가 “어머! 나눔해야지!” 하며 다시 한자리에 모인 적도 있습니다.

말복 챌린지를 할 때 주신 가이드가 있었는데, 첫째는 일어날 때는 매일 아침 말씀으로 자녀를 격려해 주기, 둘째는 차에서나 길을 갈 때 자녀들과 말씀으로 대화하기, 셋째는 식사 중에 대화하며 말씀에 대해 가르쳐 주기, 넷째는 매일 자녀의 잠자리에서 자녀를 안고 기도해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이 모든 가이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어렵고 초반에는 어색함을 극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참 잘합니다. 부모인 저의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한다는 말들도 거짓이고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제 편한 대로,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도 하고 할 일을 하면 좋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암송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저의 문제였습니다. 신랑도 일하며 틈틈이 차근차근 암송을 잘 해 나가고,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암기력을 주셨나 착각이 들 정도로 암송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주 들여다보며 읽고 암송하는데 집중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억력이 아닌 정성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도 생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내어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거나, 말씀을 포스트잇에 적어 상부장에 붙여 놓고 설거지할 때도 부지런히 암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103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는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암송하다가 어려울 때는 아이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점검해 주고 가족이기에 서로 밀고 끌고 당겨 주고 감싸 주는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전인 줄 알았는데 팀전이라 부담이 덜어지면서 힘이 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눔 시간을 통해 모르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암송이 더 잘 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설교에 나와 깜짝 놀라더니 눈을 반짝이며 설교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암송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귀담아듣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의 시간은 우리 가정의 첫 가정예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리던 일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매 주일 저녁시간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시간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흥얼거려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이런 작은 자와 가정을 통해 역사하심은 근사하고 찬란합니다. 내 솔직한 민낯을 보게 하시고 부끄러움도 알게 하시며 결국 스스로 변화를 원하며 결심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가며 의지하고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해피패밀리 영상을 찍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한 지구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부어 주실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고자 간섭하시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구촌**

## 2025 협력미자립교회 전도지원 사역 - 수원 글로리교회 -



국내선교부 전도사역팀 교회부흥전도단은 지난 5월 17일(토)에 협력미자립교회인 수원 글로리교회에서 노방전도 사역과 이웃초청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5/8, 15(목)은 전도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교회 주변 곳곳에서 노방전도로 복음전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졌으며 5/17(토)는 이웃초청잔치를 통해 노방전도를 통해 만났던 영혼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구촌교회 교회부흥전도단 성도님들의 전도를 통해 교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수원 글로리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에 참여하여 복음전도에 불씨를 일으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미자립교회 전도지원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이 되는 은혜의 사역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 초여름의 맛 '참외 잼봉 리코타 샐러드'

**재료(2인분)** 참외 2개, 고운소금(입맛에 맞게), 올리브오일 10~15ml, 잼봉 햄(혹은 얇은 샌드위치 햄), 리코타치즈 도구 필러, 채

### 레시피

1. 깨끗이 씻은 참외 양 끝 꼭지를 잘라 준 후 필러로 껍질을 깎아 주세요.  
\* 제가 쓴 톱니 모양의 채칼의 이름은 '썸땀 채칼' 입니다.
3. 참외는 세로로 잘라 속을 파 주세요.
4. 참외 속은 채에 놓고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 으깨어 즙을 최대한 내주세요.
5. 참외즙+올리브오일 섞어 주고 소금은 입맛에 맞춰 넣어 주세요(짹짹할 정도의 소금간)
6. 참외는 얇게 잘라서 리코타치즈와 잼봉 햄을 겹쳐서 5번에서 완성한 드레싱을 뿌려 드세요.

\* 감바뉴, 바게트 빵과 함께 드시면 잘 어울려요.



## 막다른 그 길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여기가 끝인 것 같다고 더 이상 갈 힘이 없다고  
우리는 가던 길의 그 반대 길로 뒤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때 우리가 해내야 할 것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어지기’예요.

모든 힘이 빠져 그 앞에 엎어진 나를 보시고 죽는 줄 알았더니 살려 내시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시작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할 수 없었기에 보이시는 일들이 더 선명히 느껴져요.  
고난 중에도 주어지는 만나를 차곡차곡 모았더니 내 삶의 간증이 빼곡하게 채워져요.

그러니 절대로 뒤돌아가지 마세요.  
엎어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서 지금의 그 눈물이  
반드시 찬송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되길 축복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후 4:14-15). **지구촌**



**이단비 목자** 청년1지구 여호수아촌 빛진자목장

도서 '최강의 레시피'(저자 데이비아스프리) 전체 감수&비주얼디렉팅 / AK플라자 제철식재료  
컨텐츠 연재 (레시피&사진&영상) / 곤트란쉐리에 메뉴개발&스타일링 / 성남시 사회적 이슈  
공익광고 스타일링 **인스타그램** foodstylistdanb **이메일** danbione1@naver.com

이 레시피와 글이 우리의 가정, 목장모임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AI시대의 동반자 AI Agent



여인갑 장로

분당지구 서울바울목장

ChatGPT를 사용하여 단순 질문을 하며 사용하는 방법은 지구촌비전 5월호 70쪽 “쉽게 활용해 보는 ChatGPT”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제는 AI시대의 동반자인 AI Agent 활용에 대해 알아 본다.

AI Agent(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주어진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거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지능형 도우미이다. ChatGPT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AI들이 있으며, 목적과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AI의 종류 및 특징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AI 선택 기준	추천 AI	이유
창의적 글쓰기/아이디어 발상	ChatGPT	자연어 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스타일로 글쓰기 가능
긴 문서 읽기/요약	Claude	긴 텍스트 처리와 윤리적, 부드러운 설명에 특화
최신 정보, 실시간 검색	Perplexity	인터넷 실시간 검색 기반, 출처 명시, 빠른 정보 탐색
구글 서비스와 연동 작업	Gemini	Gmail, Google Docs 등 구글 생태계와 최적 연동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자동화	MS Copilot	MS Office 내장형 AI로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자동화 지원
대화형 질문 답변	ChatGPT, Claude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대화형 답변, 친절한 설명 기능
기술적 분석/코드 작성	ChatGPT(Plus)	코딩 지식 내장, 다양한 언어 코드 작성과 설명 지원

AI별 특징 및 활용을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ChatGPT는 대화형 창작, Claude는 부드러운 상담, Perplexity는 정확한 정보 검색, Gemini는 구글 통합 활용, Copilot은 오피스 업무 자동화에 강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ChatGPT를 중심으로 해서 활용의 고도화 단계를 알아 보자.

## 1. Custom ChatGPT 활용하기

AI Agent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ChatGPT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Custom ChatGPT의 활용 단계가 있다. 맞춤형 ChatGPT라고도 하는 이 기법은 ChatGPT를 활용할 때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매번 ChatGPT에 알려 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준다. 때문에 자주 활용하는 형식(갈립, AI관련 질문, 신앙적 논평 등)에 맞춘 템플릿을 ChatGPT가 기억하게 하는 기법이다. 반복적인 요청이나 유사한 주제의 질문에 빠르게 적응하며, 사용자 특성, 선호, 과거 대화 기록을 기반으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사용자 이름, 관심사, 선호 주제를 기억하여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하며 대화 중 사용자 선호에 맞는 예제와 인용을 추가할 수 있다. Custom ChatGPT는 단순한 지식 제공을 넘어, 사용자의 독특한 스타일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Custom Chat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ChatGPT 화면의 왼쪽 메뉴에서 프로젝트 옆 + 를 누른 후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다음에 필요한 지침을 써 넣으면 된다. ChatGPT에게 특정 토픽에 집중해 달라고 하거나, 특정한 톤이나 포맷으로 응답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즉, 맞춤형 지침을 보관시키는 것이다. 지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할 때는 ChatGPT방으로 가서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에 맞는 지침을 작성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필요시 수정한 후 복사, 붙여넣기로 하면 쉽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 2. AI Assistant 활용하기

AI Assistant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도우미이다. 예를 들어, 이메일 작성, 일정 관리, 자료 검색은 물론 고객 지원, 학습, 연구 등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AI Assistant는 이러한 장점을 통해 개인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AI Assistant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 프로그래밍 언어나 플랫폼 등 기술 스택 선택, 데이터 수집 및 정제, AI 모델 개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통합 및 배포, 지속적 개선 및 업데이트, 품질 개선 및 성능 향상과 같은 순서에 따라 만들면 된다. AI Assistant는 단순히 챗봇 이상으로, 지능적이고 사용자 맞춤형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할 수 있다. AI Assistant를 만드는 방법과 예시도 ChatGPT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3. AI Agent 활용하기

AI Agent는 AI Assistant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다양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고객의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해결하거나, 일정에 맞춰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도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다.

아침마다 사용자에게 맞는 뉴스를 요약 제공하거나, 선호하는 음악의 자동 재생, 사용자의 개인적 취향, 습관,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맞춤화할 수 있다. AI Agent 활용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업용: AI Agent가 고객 문의에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임.
- 개인용: 개인 비서 AI Agent가 일정 관리, 메시지 응답, 뉴스 요약 제공 등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
- 의료 분야: AI Agent가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고, 치료 계획을 자동으로 제안.
- 교육 분야: AI Agent가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

AI Agent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의 삶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4. 통합형 AI Agent 활용하기

통합형 AI Agent는 여러 AI Agent가 상호 연결되고 협력하여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통합형 AI Agent는 동시에 또는 각 Agent가 맡은 역할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Agent가 이메일을 분류하고, 다른 Agent가 일정을 조정하며, 또 다른 Agent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멀티태스킹이 이루어진다.

통합형 AI Agent는 단순히 여러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더욱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지구촌

#### 경력

경영학박사/정보공학기술사 / (주)시스코프 대표이사 / 서울공대 졸 / (사) 한국정보공학기술사 회장 역임 / (사)한국IT전문가협회장 역임

## 엄마와 아들

### - 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겨자씨만한 믿음)



이혜진

분당6지구 탄천 은혜6목장

40대가 되어서야 아이가 생겼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해 아이가 생겼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 그동안 난임으로 시술을 계속해 왔지만 나에게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 자연임신으로 아이가 생기고 나서 아이의 건강은 물론이고 나의 건강을 지키려 했다. 자주 소화가 되지 않아 소화제를 밥 먹는 듯 먹었던 나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데 집중했고, 내가 아파서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내 건강에 더 집중했다.

그렇게 아이가 생기고 몇 개월 뒤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내가 아들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다들 딸을 원하는 데 왜 아들이냐고 하겠지만 나는 아들과 성격이 맞을 것 같았다. 딸과 엄마 사이의 갈등이 많은 것을 익히 경험하였고, 이 갈등은 내가 심리상담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늘 엄마의 전적인 지지자 같은 딸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딸과 엄마 사이에는 신경전이 있다. 딸이 엄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나 역시 엄마의 딸인 내가 자주 생각해 오고 속상해하고 연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아들과의 정서적 친밀감 면에서 나와 더 맞을 것 같았다. 친정아버지가 내게 남기고 가신 선물로 아들을 주고 가셨다는 생각도 했다. 내가 아들을 더 원했다. 친정에는 대를 이을 남자가 없어 웬지 뱃속의 내 아이로 아버지의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친정아버지를 무척이나 따랐던 나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대를 잇고 싶었다. 옛날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그렇게 위로하고 내가 장녀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아이의 건강과 한 가지만을 기도했다 - 사람들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를…….

아이를 낳기 한 달 전까지 병원에서 심리상담 일을 했으니까 아이도 태중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원래부터 아기와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나는 내가 아이를 키우면 너무나 내 아이를 좋아하면서 잘 키울 거라 생각하고 이상적인 가정과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 왔었다. 현실에서도 잘 해낼 거라 여기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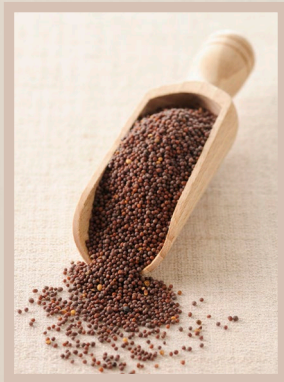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아이가 내 뱃속에서 움직이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나는 기분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다. 아이의 상태를 초음파로 볼 때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는 이렇게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은총이(아이의 태명)는 이렇게 웃고 있네.”

정말 뱃속의 아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뱃속에서 웃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모른다. 마치 내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소중한 내 아이가 되었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되었을 때 사고로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남편이 다녔던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었던 때였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니 절실한 마음에 교회를 찾아가 교회 지구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던 중,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때 내가 자주 했던 말은 “그 말이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였다.

11년 전 늦은 나이였지만,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과 “하나님,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어요”라고 했던 나의 말을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 시간이 지나면서 난 임시술을 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마음이 절실한 건지 아닌지, 노력은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흐릿해졌던 시간들이 있었다. 노력을 하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가



기에 바빴던 시간 속에서 남들에게는 아이 갖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나 자신이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외롭거나 남편과 다투거나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때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읽어 주셨다. ‘겨자씨만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알아 주시고 들어 주셨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혼자서 한마디 한마디 중얼거리거나 하나님께 말했던 것들을 현

실로 보여 주셨다. 내가 혼자 중얼거렸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들어 주시며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현실에서 선물로 주셨다.

지금껏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가? 간절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던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셨듯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저의 아픈 부분을 만져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다시금 깨달아요. 저의 구원자, 저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친정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고 나서 혼자서 묵묵히 살아 보려고 애를 많이도 썼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육신의 아버지와 매우 친밀했던 경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네요. 저는 세상 속에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갈게요.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안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합니다! **자구촌**

(다감심리상담센터, / 상담심리 전문가&임상심리사)



2025. 6. 7(토) - 2025. 6. 20(금) 분당채플 로비갤러리 & 뜨랑슈아카페 내

## 지구촌 미술회 제27회 바실레이아 정기전



2023, 2024 바실레이아 전시풍경

**참여작가** 김미현, 김선영, 김예나, 박미정, 박정선, 방용권, 손정순, 송인택, 심경숙, 심주희, 양선경, 오경미, 오도연, 윤정원, 윤종원, 이수정, 이수형, 이은미, 임의숙, 장승혜, 장현준, 채은선, 황금선, 함은옥

따뜻해지는 햇살만큼, 우리의 마음도 따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지구촌 미술인들의 마음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갤러리는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께 잠시나마 시선을 멈추고, 사색하며,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은 생각을 담고, 정성을 담고, 어떤 때는 고통과 환희를 담는 작업입니다. 작가와 작품의 관계, 작품과 관람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등, 모두 감사와 축복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이길 간절히 소망하며,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함축된 공간에 담겨진 깊은 의미와 사랑과,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시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지구촌교회 복지선교부와 '바실레이아'전시에 참여해 주신 모든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16:3).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he will establish your plans (Proverbs 16:3).

- 지구촌교회 갤러리단 박정선 -

2025. 6. 21(토) - 2025. 7.11(금) 분당채플 로비갤러리 & 프랑슈아카페 내

## 윤윤숙 작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작품1) 축제  
45.5×38.0cm oil on canvas



작품2) 축제  
41.0×31.8cm oil on canvas

우리는 누구나 꽃이 되고 싶어 한다.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한 한 아름의 소망이 이미 아름답게 피어 있기도 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봉오리를 맺기도 한다.

어떤 꽃이어도 좋다.

예수님 안에서 피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기쁨과 소망을 경험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도 같지 못하였다고 하지 않았는가?” (마태복음 6:28-29).

일상이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한 송이 꽃을 피운다.

그 속에는 사랑도, 눈물도, 감사도, 아픔도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언젠가는 가장 귀한 꽃을 들고 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그리며 날마다 꽃들과 살고 있다.

### 지구촌



#### 경력

- 부산여자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 개인전 7회
- 국제 교류전
- 그룹전 단체전 다수
- 더 컬럼스 갤러리 초대전외 다수

#### 현재

- 한국미술협회, 성남미협
- 할렐루야교회, 미술인선교회

연락처 010-5211-0234

# 데어 윌 비 블러드 There Will Be Blood

이계원

분당5지구 밀알 3 목장



**엘라이:** 집이 정말 멋지네요. 우리 밀린 얘기도 해야죠.

**제3계시교와** 합작하는 거 어때요?

**다니엘:** 한 가지 조건이 있네. 가짜 예언자라고 말하게.

욕망은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동시에 욕망은 저속하고 열등하며 파멸의 끝에 가서야 스러지는 매우 끈질긴 생명체다. 그것을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화는 자본과 거짓 종교가 만났을 때

그 끝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몰아붙인다.

◇

다니엘은 갱도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도 불사조처럼 살아남는다. 가스가 팍 차 있는 지하 갱도에서 숨을 쉰다는 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고통이지만 그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석유채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직원 한 명이 목숨을 잃는다. 다니엘은 그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아이를 앞세워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큰 호응을 얻는다.

◇

그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땅을 소개받는다. 거금을 제시하며 당장 계약을 하자는데 그에게 땅 주인의 아들인 엘라이가 가격을 올리고 조건을 제시한다. ‘제3계시교’ 목사인 엘라이는 손에 들어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교회 앞에 길을 먼저 놓게 하고 인부들도 예배에 참석 시키는 등 자신이 이끄는 ‘제3계시교’를 키우기 위한 야심을 드러낸다.

◇

자본과 거짓 종교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엘라이는 다니엘의 유정탑 기공식에 자신이 축성을 해 주겠다고 한다. 엘라이가 주민들 틈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만 다니엘은 본인이 축성기도를 한 후 식을 마친다. 엘라이의 표정이 무참해진다.

◇

작업 도중 인부가 유정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다니엘이 엘라이에게 인부의 장례 기도를 부탁하지만 단번에 거절당한다. 엘라이는 기공식 때 자신이 축성을 못해 사고가 난 것이



라고 일침한다. 한쪽에서는 교회 증축 공사가 한창이고 다른 쪽에서는 석유굴뚝에서 나온 잿빛 연기가 하늘을 시커멓게 물들인다.



땅에서 가스가 터지는 바람에 다니엘의 아들이 청력을 잃게 된다. 아비규환 속에서도 석유 매장량이 얼마나 많겠냐며 불기등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눈빛은 섬뜩하다. 다니엘이 엘라이를 찾아간다. “성령 받았던데 내 아들 귀는 언제 고쳐 줄 거야?” 다니엘에게 뺨까지 얻어맞은 엘라이가 악을 쓴다. “제가 축성했으면 그런 일 없었어요. 당신, 제3계시교에 빚졌어요.” 닳은 꼴의 두 사람은 한 치 양보도 없이 으르렁거린다.



아버지의 관심에서 떨어진 아들이 침실에 불을 지른다. 다니엘은 바로 아이를 농아학교에 보내 버린다. 탐욕으로 달려온 그의 얼굴에 언뜻 고통이 스쳐 가지만 더 큰 욕망이 핑음을 내며 달린다. 송유관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마을의 땅 주인은 그에게 엘라이를 찾아가라고 말한다. 엘라이는 기다렸다는 듯 그를 무릎 꿇린다. 엘라이가 악마를 내쫓는다며 그의 뺨을 연거푸 때리기 시작한다. 폭력을 참고 있던 다니엘이 중얼거린다. “송유관을 얻었어.”



세월이 흐른다. 저택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의 노년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마침 결혼한 아들이 그를 찾아온다. 아들은 수화로 이야기를 한다. ‘제 일을 좋아하게 된 건 아버지 덕분이예요. 멕시코로 가서 회사를 차릴 거예요.’ 다니엘은 유일하게 정을 주었던 상대가 떠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한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사실은 넌 고아야, 내 핏줄이 아니야.” 그는 뒷에 갇힌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다니엘과 엘라이가 조우한다. 다니엘은 투자 조건으로 엘라이에게 가짜 선지자였다는 것을 외치라고 한다.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신도 부정할 수 있는 엘라이와 시종 욕망에 충실했던 다니엘은 하나의 인격체다. 누군가는 죽어야만 싸움이 끝난다. 엘라이를 죽인 다니엘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진다. “이젠 끝났네.”

자본가는 돈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거짓 종교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본과 손을 잡는다. 그러나 둘은 태생부터 공존할 수 없는 관계다. 돈을 맹신할 때 우리는 맘몬에 지배당한다. 돈은 생각보다 위력이 커서 애초에 경계하고 절제해야 할 대상이다. 영화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는 한편 이 시대 악마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지구촌**

## 운동 싫어하세요? 괜찮아요~

— 신체운동을 좋아하지 않아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다.




당신이 신체운동(exercise)을 좋아하지 않거나 시간이 없어 못 한다면, 당신에게 전해 줄 좋은 소식이 있다. 새롭게 발표된 연구는 일상의 집안일과 활동들을 보통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 하는 것이 건강과 수명 연장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집안 청소, 계단 오르기,

또는 막 떠나려는 버스에 타려고 뛰는 것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신체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년 4월 15일, 미국 심장 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발간하는 순환기(循環器) 학술지(Circulation)에 발표된 「심혈관계 문제 및 사망률에 반하는 부수적인 신체활동의 용량-효과(dose response)」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2만 명이 넘는 성인의 매일의 움직임을 약 일주일 코스로 분석했다. 이들 중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신체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또는 진공청소기로 거실 청소를 할 때 아주 스피디 하게 한다는 것 등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활기차게 움직였다.

**Circulation**  
 Volume 151, Issue 15, 15 April 2025; Pages 1063-1075  
<https://doi.org/10.1161/CIRCULATIONAHA.124.072253>



이 연구에서 이러한 매일의 활발한 행동의 양(量)은 종종 하루 5분이 안 될 정도로 적었지만, 그 영향력은 놀랍게 큰 것이 발견되었다. 활발하게 움직인 사람들이 몇 년 이후 심장마비 혹은 뇌졸중을 경험할 확률이 하루 종일 대체로 느긋하게 움직인 사람들에 비해 절반 정도였다.

이 연구를 주도한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의 엠마누엘 스타마타키스 교수는 “이 연구는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일상생활에 맞추는 방식을 찾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신체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활동 대비(對比) 신체운동에 대한 과학(The science on movement vs. exercise)

이 연구는 신체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방법에 관해 현재 성장 중에 있는 연구 분야를 주창(主唱)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타마타키스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탐구해 왔다.



바이오뱅크는 건강 정보와 조직 샘플을 제공한 수만 명의 영국 성인들의 명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다수는 직장과 가정에서 거의 매 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기록하는 고급 활동추적기(advanced activity tracker)를 일주일 동안 착용하였다. 이전에 수행하였던 연구 결과물들에서 스타마타키스 교수와 그의 공동 연구진은 활동추적기로부터 수집된 판독 정보(readout)들과 이에 관련된 건강 및 사망 기록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신체운동을 전혀 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이 '기운찬 걸음걸이(vigorous pace)'라고 부르는 속도로 자주 몸을 움직인(활동한) 사람들, 즉 버스를 잡으려고 숨차게 뛰거나 계단을 힘차게 오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처럼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각한 질병에 덜 걸리고 수명이 더 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운동 과학자인 스타마타키스 교수는 많은 사람이 신체운동과 활동에 관련해서 '기운차다(vigorous)', '강렬하다(intense)' 등과 같은 단어에 위축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그와 동료들은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방식이 과연 더 나은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 **짧게 힘을 내어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신체 활동(physical activity)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볍다(light)', '적당하다(moderate)', '기운차다(vigorous)'로 분류할 수 있다. 가벼운 강도의 활동은 숨차지

않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노래까지도 부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쉽다. 적당한 활동에서는 약간 숨이 가쁘게 말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다. 기운찬 활동에서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할 수 있다. 노래는 더더욱 부를 수 없다.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스타마타키스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동작 패턴을 매 10초씩 나누어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이 ‘가볍게’, ‘적당하게’ 또는 ‘기운차게’ 움직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머신 러닝 알고리즘<sup>¶</sup>을 사용하였다. 정식으로 신체운동(exercise)을 해 본 적이 없는 성인 24,139명의 바이오뱅크 활동추적 기록들을 사용하여 그것들과 그들의 질병(hospital) 및 사망관련 자료(death data)와의 관계를 대조하였다.

¶ 머신 러닝 알고리즘(machine learning algorithm)은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되지 않고도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지침 또는 수학적 모델을 뜻한다. 주로 새로운 데이터 통찰력(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지식)과 패턴을 발견하거나 주어진 입력 변수 세트에서 출력 값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연구 결과, 주문한 점심을 찾으러 가거나 복사기점(copier)에 가기 위해 산책 삼아 걷는 것 등의 가벼운 일상 활동을 한 사람들에서는 이러한 활동마저 거의 하지 않은(almost zero activity) 것으로 기록된 사람들(즉,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 관찰을 시작한 다음 8년 동안에 심혈관 문제 및 사망 위험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벼운 활동만으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의 활동이 필요했다.

‘가벼운 활동’보다는 매일의 ‘적당한 활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사람들이 하루 24분씩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면 심혈관계 문제 발생 또는 사망 위험이 50%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일의 ‘기운찬 활동’의 최대 유효 용량(the most effective dose)<sup>¶</sup>은 훨씬 더 낮았다. 숨을 헐떡이며 하루 5분만 급하게 왔다갔다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거의 4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효 용량은 약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치료적인 효과 또는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의 용량이나 양을 의미한다. 동일한 효과를 보기 위해 큰 용량이 사용되는 경우는 유효 용량이 높다고 하고 반면 작은 용량이 사용되는 경우는 유효 용량이 낮다고 표현한다.

##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연구의 핵심은 간단하다고 스타마타키스는 말했다. 그는 특히 신체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집안일이라든지 어떠한 활동에서라도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고 말했다.

“계단 오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활동’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서둘러 오른다면 ‘기운찬 활동’이 되겠지요. 또는 걷는 동안에는 팔을 휘두르며 속도를 내서 걷는 것도 ‘적당한 활동’입니다.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정원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하려는 일에 조금 더 힘을 가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주로 교육받은 백인 영국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집안일을 천천히 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움직임에 전혀 관계없이 심장 질환의 위험에 취약한 근본적인 건강상의 문제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연구 첫해에 심장 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을 제외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줄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 결과가 신체운동(exercise)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스타마타키스 교수는 “당신은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건강과 상황이 허락한다면, 신체운동도 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따금씩 분발하면서 활동하십시오.”

“이 연구는 방법론적인 것과 이 연구가 주는 메시지 모두에서 상당히 훌륭합니다”라고 운동 강도에 관한 연구를 하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신체운동 과학자인 마틴 기발라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건강을 위해 신체운동을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더라도, 일상활동에 좀 ‘적당하거나’ 또는 ‘활기찬 활동’을 조금씩 포함시키면 ‘의미 있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구촌**

— 2025년 4월 15일 자 온라인 워싱턴 포스트

## 안수집사 | 34명

강효원A 권기진A 권민도A 권혁수A 김무근A 김민수BP 김우호A 김정관B 김정만A 김현욱A  
 민승동A 민영남B 박선순A 백만영A 송대중B 엄경호A 여상직A 우구희A 우종만A 윤소요A  
 이건수A 이광락A 이동기F 이철희E 이학만A 임근영A 전홍희A 정덕화A 지인호A 지형용A  
 최전호A 한일수A 한지훈H 한창균A

## 권사 | 138명

강경숙E 강은숙B 고경순A 고광원A 고윤주A 고재숙A 구귀정A 권혜영C 김건희F 김경순N  
 김미경BB 김미경P 김미애N 김민경SI 김민선R 김민영AF 김선화M 김성자E 김순영K 김순옥R  
 김신A 김양수E 김영인F 김영훈M 김영희AC 김영희Q 김은실C 김은영AB 김은영BC 김은정AM  
 김정숙AN 김정임C 김종운B 김하연D 김향신B 김현정T 김형남E 김화령A 김희숙C 나해정A  
 남궁지윤A 문원순A 민혜경E 박경화B 박미남A 박미숙K 박미숙L 박미희H 박소진F 박신희B  
 박유선D 박윤미C 박윤주C 박윤희A 박은경T 박인숙 박정인B 박지현H 박천희A 박현숙Y  
 박현주Y 백혜선B 변인원A 상명화A 성언수A 성향록A 손미경 손선희A 손성희B 손희청A  
 신지은D 신현애C 안경희A 안선애C 양은선A 여지연B 오권진A 오명숙A 유미선B 유민경C  
 유정영A 유지영D 육정심A 윤정화D 윤지혜C 이경아N 이매리아 이미숙P 이미애H 이미옥B  
 이미자A 이상경B 이선희R 이소희E 이수남C 이수연AT 이순화B 이승희J 이양란A 이영경A  
 이원향A 이윤희T 이은영AL 이은형B 이정원T 이정화AA 이정화AD 이정희AG 이지원AG 이혜림D  
 이해열A 임소희A 임아랑A 장래수A 장명숙B 장순옥C 정경미A 정매현A 정영주D 정월녀  
 정은이A 정재연A 정태희A 정현주I 조소영D 진선우A 채숙희A 최난주A 최숙B 최은주F  
 최인성B 최정순B 하영미A 하창숙A 한선영F 한은경B 황은성A 황은신A

## 전입 안수집사 | 3명

김삼문A 임상현D 최규근B

## 전입 장로 | 1명

김훈정

## 전입 권사 | 12명

김경숙T 김인애 백인자A 신연아B 심해숙A 연명선A 오순례 이숙자P 정영미 조해분  
 조호점A 최정남B

## 명예 장로 | 8명

강규원A 김지영CS 원종일A 윤왈영A 이달호B 이동규S 정영석D 차종태A

## 명예 권사 | 11명

민병옥B 박선이B 박현숙AG 송은순A 심강숙A 오정숙H 이종림A 이현숙B 임순엽A 정연자B  
 현영희B

## 은퇴 장로 | 36명

강성철B 강창선A 권오정B 김동선C 김석진D 김우형A 김인수E 김지동A 김창수D 동배A  
 민건식A 박경운A 박승섭A 박연환A 박정택A 박철수D 서갑률A 서정호C 송형권A 안재홍A  
 엄서호A 유성환A 이대훈A 이산우A 임영식B 전운기A 정원A 정의경A 정해경A 차명철A  
 최완희A 최은규A 최홍규B 한규직A 홍두식A 황욱정A

## 은퇴 권사 | 57명

강연수A 강영희H 김승희B 김영애B 김영인L 김은경BC 김은순A 김정숙R 김정순AF 김주경B  
 김현숙AC 김희재E 나인숙A 나종실A 문경숙B 문홍순A 박수남E 박영숙T 박윤옥A 배영희C  
 서정옥A 송미숙C 송선희A 신경자B 신명호A 양경파A 양승애A 양영숙B 오영순B 유은숙B  
 윤재례A 윤혜자B 이경자K 이경후A 이길순D 이명자E 이명희T 이명희U 이연숙A 이정규A  
 이주현L 이현례A 임성순A 임정은B 임지영C 장원숙A 정혜란A 조희순A 채승희A 천인숙A  
 최희수A 하명배A 한만영A 함정숙A 허명숙A 홍정희B 황미영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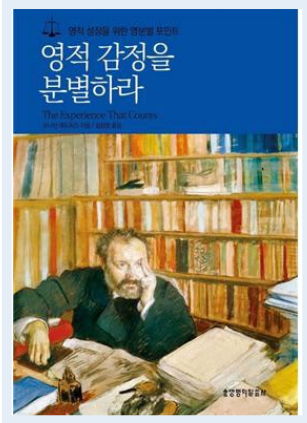
## 호칭 장로 | 37명

권영갑A 김경수H 김광천A 김기홍C 김도형J 김상범G 김상중A 김성룡C 김영래C 김영훈H  
 김인철C 김진호R 김태호K 민인규A 박광희B 박노형A 박상구B 박수범A 박영희A 박종국D  
 박진수D 백성욱C 신동화A 신한식A 오행일A 원정희A 윤석구B 이상규I 이성수G 이윤곤A  
 이일용A 장종철A 전훈A 차봉집A 최남철A 최종식A 홍의정B



## 조나단 에드워즈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그 감정은 진짜였을까? | 허정식A 집사 분당3지구 작은천국목장



우리는 예배 중에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저 또한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찢림과 함께 뜨거워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았다”고 입 밖으로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이후의 가정과 일터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 제 안의 무지와 교만,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악한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이 진심인지, 혹은 단순한 분위기나 감정의 고조 때문은 아니었는지 깊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 “왜 예배 이후 일상 속에서 나의 삶과 태도는 변화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를 읽으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란 그는 “진정한 영적 감정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일시적인 열정이나 외적 행위로 드러나기 보다 지속적인 삶의 변화, 즉 거룩한 성품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또한, 진정한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 중심성과 성령의 열매이며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겉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뚫고 들어가 인간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영적 감정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 영적 감정은 반드시 삶에서 거룩한 열매로 맺는다.”

이 책을 통해 현재 나의 영적 감정 상태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의 영적 감정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진정한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원의 진정한 경험이 아닌 것들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남겨 주신 은혜로 가정과 일터, 모든 갈등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말과 행동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겸손과 배려, 사랑과 용서로 삶 속에서 드러냄으로 그 감정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신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선 곳,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한 감정이 내일의 나의 삶을 바꾸는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

● 지구촌교회 정기집회 안내

수지채플		구분	분당채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08:00	본당(4층)	1부 예배	08:00	본당(8층)
10:00		2부 예배	10:00	
12:00		3부 예배	12:00	
14:00		더함예배 장년/청년2/통일비전	14:00	
16:00		홀리웨이브예배 (대학/청년1)	16:00	
05:30	본당(4층)	새벽기도회 (월-토)	05:30	그레이스홀(로비층)
11:30		수요예배 (수)	11:30	본당(8층)
20:30	파워웬스데이예배 (수)	20:00		
10:00	본당(4층)	금요심야기도회 (금)	20:30	
		시니어예배 (금)	10:00	

● 교육목장 주일예배

10:00 12:00	111호	영아촌 0세-3개월 (부모 동반)	10:00 12:00	702호
	110호	유아촌 4세-5세		701호
	208호	유치촌 6세-7세		703호
14:00	110호	미취학 연합촌 4세-7세	14:00	701호
10:00 12:00	201호	유년촌 초1-초2	10:00 12:00	710호
	203호	초등촌 초3-초4		711호
	207호	소년촌 초5-초6		712호
14:00	201호	어린이 연합촌 초1-초6	14:00	712호
10:00	202호	중등마을	10:00	206호
	310호			중2-중3
12:00	310호		중1-중3	12:00
10:00 12:00	311호	고등마을 고1-고3	10:00	412호
			12:00	209호

● 장애인을 위한 주일예배

12:00	202호	아름학교 어린이/청소년/장년	10:00 12:00	105호, 106호
*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동행 예배	12:00	L02호(1층)
		농아인 예배	10:00	L02호(1층)
			14:00	본당(8층)

● 글로벌목장 주일예배

*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예배	장년	10:00	선교센터 (MD프라자)	올네이션스홀(B1층)
		청년	14:00		다니엘홀(701호)
		청소년	10:00		글로벌아홀(8층)
	어린이	햇빛마당홀(B1층)			
	미취학	에스켈홀(7층)			
	몽골어 예배	10:00			
	중국어 예배	10:00			
	중국어 주일학교	12:00	소피아홀(8층)		
	일본어 예배 / 일본어 주일학교	14:00			
이주자 예배	13:30	글로벌아홀(8층)			

● 분당채플 3부(12시) 예배에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분	경기대채플		필그림하우스		구리지구촌채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1부 예배					08:00	
2부 예배	10:00	텔러컨벤션센터	09:20	갯세마네채플	10:00	5층, 본당
3부 예배	12:00		11:00	카리타스채플	12:00	
4부 (젊은이) 예배					14:20	
청소년 예배	10:00 12:00	복지관B207호			10:00	6층, 615호
어린이 예배		복지관B206호			12:00	6층, 614호
미취학 예배		복지관B202호			12:00	6층, 616호
수요예배			19:00	갯세마네채플		
금요비상기도회					20:30	5층, 본당
새벽기도					05:30	
토요기도회			19:00	갯세마네채플		

- 경기대채플에서는 미취학/어린이/청소년 예배가 동일시간에 진행됩니다.
- GMN채플 예배는 현장예배 회복으로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48(신봉동)  
대표전화 031-264-9191 팩스 031-270-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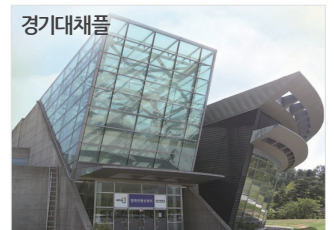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154번길 6(구미동)  
대표전화 031-710-9300 팩스 031-710-9400  
선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들마로 52(MD프라자)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1862  
대표전화 031-589-7601 팩스 031-589-7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74번길 19(구미동)  
대표전화 031-719-9191 팩스 031-710-59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  
대표전화 031-270-8230(주일전용)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65-6층(수택동)  
대표전화 031-564-9291 팩스 031-569-9291



## 원고접수 및 안내

###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www.jiguchon.or.kr)의

- 1 우측 중앙 지구촌비전 아이콘 선택 후
  - 2 원고접수 게시판에
  - 3 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 관련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박스가 안 보일 경우  
인터넷 메뉴줄 우측의 호환성 보기 설정 필요



원고접수게시판  
바로가기

접수된 원고는 교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되면 여건상 게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지구촌교회 방송설교 안내

ON AIR

지구촌교회 홈페이지(www.jiguchon.or.kr)를  
통해서 지구촌교회 예배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시간 기준) **주일예배** 10:00, 12:00, 14:00, 16:00  
**항수예배** 수요일 오전 11:30



◀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www.jiguchon.or.kr www.goodtv.co.kr	라디오	• '생명은 빛으로'(서울극동방송 FM106.9) 목요일 오전 9:00-9:30
모바일 (스마트폰 앱)	• CTS라디오조이 말씀채널 : 월 오전 3:30, 7:30, 11:30, 오후 3:30, 7:30, 11:30	TV 지구촌교회 방송시간	• CTS 화 오전 12:20 비전메시지, 화 오전 6:00 생명의 말씀 • CGN 화 오후 2:20 이동원 목사의 말씀강해(영어자막) • GoodTV 주일 오후 2:30, 목 오후 12:00(격주)

###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니이가타지구촌교회	639-2, Makio, Nishi-Ku, Niigata-Shi, Niigata, Japan	+81-25-201-8122
동경지구촌교회	169-0073 Tokyo-to, Shinjuku-ku, Hyakuninchu, 1 Chome-9-3, Japan	0574-86987477
상해지구촌교회	中國 上海市闵行区 宜山路 2328弄 30号 903室	+86-186-2172-9613
해밀턴 지구촌교회	33 charlemont st, Hamilton, New Zealand	+64-27-414-2777
호치민지구촌교회	B10-2 Nam Thien 2, Phu My Hung 7, HCMC, Vietnam	+84-8-2211-9951-2
오uckland지구촌교회	97 Onewa Road, Northcote, Auckland, New Zealand	+64-9-216-1177
닝보교회	1-1-1902, 338, ningchuan-Road, Yinzhou-district, Ningbo-city, Zhejiang-Province, China	0574-86987477

### 동역교회

기흥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문로 217 (자곡동 456-2)	031-283-7991
글로벌지구촌교회	전남 나주시 그린로 357 스키아일랜드빌딩 3,4층	061-332-0191
대뉴지구촌교회	서울 송파구 오금로 432 삼환상가 3층	02-431-6458
다리아프지구촌교회	<b>동탄채플</b>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동탄삼환대로 263번길 풍산리맨션타워 7층 <b>광교채플</b>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5 우연프라자 7층(영덕동 986-8)	031-212-2291
동백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3(중동 847), 삼성타워 9층	031-693-8291
동탄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원곡매로 168-1(중동 44-4번지)	031-8003-8253
라온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동탄 신린대로 414, 경사타워 7층	031-375-8891
민방샘 목장교회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1 덕운프라자 2층 202호	031-896-0300
민들레지구촌교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48번길 96, 4층	070-7757-1201
세움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그네로 53번길 27-24(사천동 397-20)	031-205-1191
신동탄 지구촌교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3길 107	031-376-3055
영광지구촌교회	서울 강동구 상암로61길 32 1층	010-2555-4642
온사랑지구촌교회	경기 광주시 오포읍 창들윗길6번길 8 (능평리)	070-4119-5941
죽전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9 씨티프라자 7:8층(보정동 1208-2)	031-896-7070

### 협력교회

골드코스트 지구촌교회	170 Nerang Street, Southport, QLD 4215, Australia	61-433-60-9191
뉴비전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뉴저지 지구촌교회	70 Sheridan Ave. Ho-Ho-Kus, NJ 07423, USA	+1-201-445-0191
늘기브교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14	031-978-0121
더사랑지구촌교회	부산 영도구 영안대로 40	051-415-0831
동안교회	서울 동대문구 호기로 25길 67	02-962-0727
라이프스프링교회	인천 연수구 쉼시어터로230번길 42 이리프라자 4층	032-831-3775
목동 지구촌교회	서울 양천구 목동사로 379	02-2647-0191
베이커스필드 지구촌교회	25 Gamsey Ave, Bakersfield CA, 93309	(346) 317-8766
세종지구촌교회	세종 장군로 대교길 117-15	044-862-1441
송탄중앙침례교회	경기 평택시 탄현로 368번길 25 (독곡동 403-5)	031-665-2995
시목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3길 32 시목교회	043-269-1941
시애틀 지구촌교회	4900 168th St SW Lynnwood, WA 98037	425-350-0191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4480 Peachtree Corners Cir, Norcross, GA 30092	404-579-4570
영주침례교회	경북 영주시 명륜길 38 영주침례교회	054-634-2004
예일교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8	051-518-4189
워싱턴지구촌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301-460-1656
원주 온누리침례교회	강원 원주시 이화4길 50-11	033-748-0032
천안 지구촌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17번지, 201호	041-523-1191
춘천침례교회	강원 춘천시 성삼로 47번길 99	033-254-4059
함흥교회	14100 Parke Long Ct, Suite K, Chantilly, VA 20151	(571) 719-2592

G L O B A L M I S S I O N C H U R C H

# 세상중보의길 세미나

4주  
목요일반

6/12(목) - 7/3(목) 오전 9시50분  
수지 아가페홀



강 사 | 채정일 목사, 유대연 목사, 송기성 전도사

등 록 | 수지, 분당 등록센터, 온라인 [www.jiguchon.or.kr/education](http://www.jiguchon.or.kr/education)

등록비 | 20,000원

등록마감 | 6/8(주일) 오후 5시까지

문 의 | 교육훈련부 분당 031-710-9417, 수지 031-270-8182

\* 7/6(주일, 낮 12시) 헌신서약식 참석바랍니다(필수)

# 영구제직과 함께하는 금요심야기도회

2025.6.6(금) 오후 8:30, 양 채플 본당

강사: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지구촌교회  
GLOBAL MISSION CHURCH